



혁명선생님은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준이다.

역사의 보전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온 혁명선생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인민의 가슴에는 남산의 주쁜 소나무가 설거졌다.

우리 천만군민은 만대대와 봉화리로부터 이득히 이어진 조국의 산파들, 저 멀리 압록강안의 힘찬한 산발마다에 헌신해 이로세계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거룩한 자욱을 뜨겁게 새겨본다.

한몸이 뛰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다면 그까마저 끝까지 써워 기어이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백발불금의 혁명과 의지를 지니시고 역사의 새벽길을 파악해 혼자나가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은 조국땅 서북면에 자리잡고 있는 청수혁명사적지에서도 새겨져 있다.

얼마전 우리는 민족자주사상과 백발불금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의 원대한 뜻 및 발치는 유서 깊은 사적지를 찾아 기행길에 올랐다.

위대한 평도사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백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혁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법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르수록 더욱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작주군 옥에서 서북방향으로 떠온 도로를 따라 청수혁명사적지에로의 취재길을 가는 우리의 기습은 설레이었다.

작주군당위원회에서 만난 일군들, 작주군의 공장과 농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담겼던 200일 전투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장엄한 대결에서 불같은 혁명열정으로 떠나고 있었다.

푸른 숲 속기장 산발들, 풍성풀들이 서 풍물에게 피어오르는 흰 연기, 잘 정리된 도로, 더욱 화려히 번보된 대출렁들…

신의 주시에서 온다는 청년학생대원이 묻는 기쁨, 남녀이며 청수혁명사적지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물결은 혼신과 희생 속에 땅에 깔려진 천번의 새 모습을 보며 우리도 청수혁명사적지에로 발걸음을 새축하였다.

# 력사의 새벽길에 새겨진 신념의 자욱

## 청수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청수혁명사적지는 천마산줄기의 철봉봉을 주봉으로 하는 높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밤밭에 자리잡고 있었다.

참관자들의 풍경이 끝없이 흐르는 도로에서 이곳 사적지의 교양과 창 김현숙동부와 만난 우리는 청수혁명 사적지에 깃든 혁명사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들었다.

푸르성상한 바늘잎나무들이 무성하게 늘어서는 도로를 따라 밤밭을 펴고 그나 들어가 날사천에 놓인 넓은 다리를 건너셨을 때였다.

바늘잎나무들과 넓은 일나무들이 혼성림을 이루 풀치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정중하게 높이 모인 불요불금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풍경으로 새겨져 있다.

이곳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것들이 혁명철옹교양장소로 더욱 홀륭하게 꾸며진 혁명사적이다.

우리는 청수혁명사적지를 더 잘 알기 위해 나와있는 삽주군의 일군과 청수혁명사적관 일군을 만나 그들과 함께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다.

생동하고 간동적인 자료들은 우리를 숨막힐정세에로 이끌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운명과 혁명을 펼쳤고 그들이 불과 우신처럼 국의 및 나라는 한생이었음을 더욱 절감하며 우리는 청수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10호실에 들어서니 감동에서 격오인 고조로 쇠약해진 걸음을 차운터를 통해 출입구에서 그들이 부단히 일하고 조성을 목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3. 1 운동기념관에서 출범과 함께 혁명사적관을 세우고자 노력해온 일군들에게 이 일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지금 세 활동을 생각하고 걸음을 지체하면 조선독립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며나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걸음을 멈춰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3. 1 운동기념관에서 출범과 함께 혁명사적관을 세우고자 노력해온 일군들에게 이 일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3. 1 운동기념관에서 출범과 함께 혁명사적관을 세우고자 노력해온 일군들에게 이 일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해온 일군들은 그에 맞춰 혁명사적관에 들어섰다.

김형직선생님의



#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와 열정

## 당을 앞장에서 받드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리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

당에 대한 불리는 충성과 지지를 모르는 창작적 일정으로 주체에 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친 전세대 문예 전사들의 뿐만 아니라 그 대로 이어 영작창작은 물론 환경을 그대로 보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속도로 진지하게 달아온 문학에 출부문의 철학과 의의가 날을 따라 양양되고 있다.

정애하는 김수님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이 블고 일어나 현 만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러내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정애하는 김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동창우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영화에 출부문이 하루빨리 청진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로 유통으로써 문학에 출부문의 철학기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애하는 김수님의 말씀은 미쳤는 심장마다 세계인은 영화에 출부문의 철학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새로운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청진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로 유통으로써 문학에 출부문의 철학기를 열어야 한다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화영화창작을 블로고 하며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 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명작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은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속도로 진지하게 달아온 문학에 출부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다.

영작, 명화면을 창조하기 위한 운동이 맹렬히 벌어지고 좋은 형상세부를 찾으려고 위한 체제의 고조를 떠나고 전진하고 있다. 자신들이 바치는 한초

한초가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걸음이 되고 하나

하나의 회면이 명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현

장에서 낫방이 끌어온 들판을

이에 성과적으로 진전되었다.

연극 『혈액』, 음악무용이 아기 『청춘의 자서전』, 음악무용 『아비랑』이 선하는 이야기,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 종합교

에 『위대한 당에 영광을』, 인

행구 『끌지 못한 수레』, 비록 『청춘의 자서전』, 음악무용 『아비랑』이 되고 그들의 무용을 고우후

통하는 작품, 활짝 젖어온

작가들의 혁명적자작과 불타는 열정, 높은 실력을 의해서만

창작될 수 있다.

지난 7월 7일 경기 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청

탁자를 떠나고 있는 이들의 두

정기 풍은 그간 같으면 몇년이 상

은 걸려야 했던 창작파제를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놓고 있다.

영화혁명의 불길은 기록영화, 과학영화창작부문에서도 새롭게 틀어 놓았고 창작과 풍자수필로도 출판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작품들이

제작된 작품들이 끝없이 풀려나고 있다.

음악무용이 아기 『청춘의 자서전』, 음악무용 『아비랑』이 되고 그들의 무용을 고우후

통하는 작품, 활짝 젖어온

작가들의 혁명적자작과 불타는 열정, 높은 실력을 의해서만

창작될 수 있다.

지금 문학에 출부문의 청탁

군들로 창작가, 예술인들은 새

세기 문학에 출부명의 달랑자라는

는 숨고한 시대를 찾고 있다.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영화를 찾고 있는 시대가 작품들을

경에 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영화혁명의 불길을 품은

# 일터와 마을, 기대에 대한 애착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 수령님 다녀가신 일련입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현지지도단원의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  
이 제시한 전투적업적을 관  
찰하기 위한 투정을 힘있게  
벌리며 대교조의 앞장에서  
집풀같이 달려나감으로써  
자기 단위에 짓들어있는  
수령님과 당의 흰도업적을  
줄건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  
여나라를 합친다.』

지난 9월말 어느 날 자정도  
현지지도단은 한방에 조합의  
구내길을 오래도록 지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 당일  
군인 정영철동무였다.

그 시각 정영철동무의 마음은  
남편을 잊은 듯 무거웠다.

얼마전 북부미해지역 인민들  
에게 보내온 1,000개의 무  
쇠가마반장을 1월 말까지 꿀  
벌에 대한 바탕을 받은 후  
불과 머물렀다.

하루 죄고 수십개정도의 무쇠  
가마를 생산하였던 시기의  
실적에 대비해 볼 때 그것이 얼  
마나 방대하고도 아름한 차례인

###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을 일에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뜻밖의 계단을 당한  
북부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하루  
빨리 가시여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당의 송고  
자속이 강회길이 끌어쳐졌다.

한가루날리고 고열이 끓거나  
는 소형용기로 앞에서 조합원들  
의 출석체육을 몽상 보아주고  
맡은 일부에 대한 책임감은 감  
절로 무거워졌던 것이다.

둔포 그의 귀전에 여러 사람  
들의 밤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아끌려 밤은 빛이  
비치지는 구내의 어느 한 곳으  
로 향하면 정영철동무는 뜻밖의  
여러 이 수령님의 자애로 우신  
광성을 이어 푸르게 생겨졌다.

낮에 밤을 이어 무쇠가마생산  
전무를 벌리고 있는 주무작업반  
원들을 비롯한 여러명의 종업원  
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모신 현지지도사직비앞으로 정  
중히 다가드는 모습을 떠여보았  
던 것이다.

정영철동무는 이윽도록  
사직비에 세게진 글을 티우려고  
먼 전업원들을 현지지도사직비  
주변에 대한 경계사례까지 하고  
서야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한방에 목격한 정영철동무의  
모습을 앞에 정영철동무가 개인  
의 이름으로 헌정하는 영예와 공  
직에 대한 존경을 결속해 끌어  
올렸다.

그러는 정영철동무에게 한 종  
연원이 다가왔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방금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  
걸을 아끼었습니다. …』

그때부터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분분히 더욱 조개하게 생산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 밤도  
경애하는 원수님 불밝은 달중앙  
전장에서 북부의 북구전투를

당아온 날까지 꾸준히 광장을 걸<br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단체들의 대오 확대, 인민항쟁 선언, 공동행동 적극 전개

【평양 11월 11일】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도 박근혜<정권>을 기어이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단체들이 지역별, 부문별로 결성되어 대중적 항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치펴올리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일 현재 박근혜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중·고교생대, 중소상공인 비상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 등 13개 부문별 대책회의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학생 시국회의에는 66개 대학 학생회와 39개 대학생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전지역의 135곳에서 대학생 시국선언 운동이 진행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등 16개 지역에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다.

10일 서울과 전라남도, 남조선 청원도, 제주도에서 <정권>퇴진을 목표로 대체로 새로운 단체들이 결성되어 두戕대오는 확대되었다.

이날 오전 민주로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민중총궐기 서울본부 소속 단체들과 정당지부들, 서울지역대학 민주동문회, 전대협 동우회, 통일의 길 등 203개의 단체가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대체로 새로운 단체들을 결성하여 두戕대오는 확대되었다.

선언문은 시국선언의 시작은 박근혜의 피진이며 그 끝은 국정평화통일법인 <세 누리당>과 재벌들, 검찰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12일 민중총궐기에 적

극 참가하며 25개 자치구단위

로 행동대회들을 결성하여 퇴진 운동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주에 이어 전라남도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단체 설립된 4 000여명은 문서

을 통하여 민국민집회에 참가할것이라 한다.

남조선의 <뉴스1>은 이번 결

성을 박근혜<정권>퇴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갑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퇴진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 보다 위력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라

하고 전하였다.

이날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와 <세 누리당> 참사자 대책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의 등 5개

단체가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과

도민들에게 박근혜 퇴진을 촉구

하는 비상시국회의의 결성을 제

안하였다.

단체들은 4. 3봉기정신이 살

아 흐르는 제주는 불의에 침투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키우

는 요구에 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선언하였다.

박근혜는 국민의 마지막박판을

기부한다며 행동으로 들어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단체는 새로 조직된 박근혜<정

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제주군에 조직적인 운동을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

중총궐기로 힘을 모아 퇴진을

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10월 12일 100만 민